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중금시역화 방지를 위한 은총의숲 만들기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사순절 2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3.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p>자비하신 하나님, 사순절 순례의 여정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겨울을 지나며 죽은 것 같았던 만물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얼었던 땅은 녹고 매화나무에는 꽃봉오리가 올라왔습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사순절에 삶의 참된 의미와 고난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시오.</p> <p>주님, 서로의 삶을 경축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신은 칭찬 받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다른 이에 대한 칭찬에는 몹시도 인색한 삶을 살아온 우리입니다.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좀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한 생명을 받아 살아가는 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p>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렘31:33	인도자
♠ 교 독 문	125. 사순절(2)	다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황경순 집사 II. 한완식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286(통218). 주 예수님 내 맘에	다함께
성경봉독	I. 마7:24-27	인도자
	II. 시27:1-6	백혜숙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평화의 집짓기	김재홍 목사
	II. 단 하나의 소원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다함께	

- 찬 양 452(통505). 내 모든 소원 다함께
-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담임목사
-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릇된 기준과 편협한 자아에서 벗어나십시오. 생명과 진리이신 주님만을 붙들며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사된 욕심과 알량한 자존심의 노예가 되어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부끄럽게 돌아봅니다. 이제는 주님만을 붙들며 살겠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내려놓고 살겠습니다. 앞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집회
고난의 멜로디에 조율하다	3월 기도의 밤
강사 : 손성현 전도사	인도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곽권희 권사	고정한 학생
	김기석 목사	윤석철 장로	박범희 집사

2월	영접위원	한상익 하현철 정원석 김현영 박경원 서정순
	헌금위원	한완식 문영혜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동물 사회의 집단 따돌림

일본 직장에서의 이지메에 대한 보도가 있더니만 얼마 전부터인가 우리 아이들 간에 벌어지는 집단 따돌림, 즉 이른바 왕따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왕따에 시달리는 자식을 다른 학교로 옮기려는 맹모들 덕분에 IMF 난국에도 전세값이 올랐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친구들의 정신적인 학대를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까지 있다.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 동물들에게 소속감처럼 중요한 것도 없다. 사자나 하이에나 사회에도 따돌림을 당해 혼자 평원을 헤매다 시름시름 죽어가는 동물들이 있다. 거대한 몸집 덕에 천하의 누가 그들에게 덤비랴 싶지만 코끼리도 혼자 있으면 사자들의 밥이 된다. 마피아에게는 조직에서의 축출이 곧 죽음을 의미하듯 많은 사회성 동물들의 경우에도 따돌림은 끝내 죽음으로 이어진다.

...

돌고래 사회에서는 적령기의 수컷들이 늘 삼삼오오 떼를 지어 돌아다닌다. 은밀한 골목길 하나 없는 망망대해에서 암컷을 얻으려면 수컷 서넛이 앞뒤 좌우에서 함께 몰려 다녀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루 종일 암컷 쫓무니를 따라다녀 마침내 허락을 받아내면 패거리 중의 한 수컷이 그 암컷을 취하는 영광을 얻는다. 다음날 또 다른 암컷의 허락을 받아내면 이번엔 다른 수컷의 차지다.

이렇듯 돌고래 수컷들은 그들 간의 차례를 지키면서 친구들끼리 협동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최근 동물행동학자들의 관찰에 의하면 아무리 같이 다녀도 별 볼일 없어 보이면 설령 친구라 할지라도 버리고 자주 패거리를 옮겨다니는 약삭빠른 수컷들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일단 지조 없는 친구로 낙인찍히면 아무리 차례가 와도 다른 수컷들의 방해로 암컷을 얻지 못할 뿐더러 결국 집단 따돌림을 면치 못한다.

학교 폭력과 따돌림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부분 아는 사람들끼리 옹기종기 모여 살던 세상에서 이른바 이방인들의 사회로 변해가며 혈연이나 지연이 아닌 다분히 인위적이고 돌발적인 인연에 의해 서로를 묶는 데서 이러한 문제는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우리 인간도 그리 오래지

않은 옛날에는 씨족 또는 부족 중심의 사회를 구성하여 살았다. ‘우리’와 ‘적’이 혈연과 지연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는 사회였다. ‘우리’가 아닌 이들은 가차없이 공격하여 제거해야만 나와 내 친족들의 몸속에 들어 있는 유전자들이 후세에 전달될 수 있었고, 또 그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개체들의 후손들만이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것이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분히 진화론적인 이유가 있다. 어느 사회에서나 약자는 나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지도 못하며 물질적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웬지 멀리 하게 되고 사소한 잘못에도 쉽게 미워하게 된다. 인류의 조상 중 강자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약자를 친구로 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남겼음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의 실수나 비행에는 역겨우리만치 관대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지극히 냉담하고 가혹한 것이다.

...

그러나 우리의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 즉 이른바 도덕성도 진화의 산물이다. 도덕적으로 옳다고 느끼는 감정은 스스로에게 유리하게끔 자연 선택된 것이기에 필연적으로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늘 옳고 적은 언제나 그르다. ... 인간은 사실 다른 모든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동물이 아니다. 우리 인간이 혈연의 울타리를 넘어 이른바 국가라는 사회를 만들고 살게 된 것은 불과 수천 년 전의 일이다. 진화학적으로 볼 때 거의 순간에 지나지 않는 과거다. 그런 의미에서 우린 아직도 작은 가족 단위로 수렵채집생활을 하도록 진화된 석기시대 사람들이다. 다만 타임머신을 타고 어느 날 갑자기 도시문명 사회에 던져진 것뿐이다. 우리는 아직도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 한다. 다만 누가 ‘우리’인지 분명하지 않을 뿐이다.

...

인간은 자신을 들여다볼 줄도 알고 또 반성도 할 줄 아는 유일한 동물이다. 따라서 충분히 도덕적인 동물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다. 다만 우리가 도덕적이길 원하면 우선 스스로 얼마나 철저히 비도덕적인지를 분석해야 한다. 동물 사회의 왕따와 인간 사회의 왕따에 대한 행동진화학적 비교분석은 우리를 증오로부터 구원하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 최재천,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중에서

승 리

김명식

승리가 무엇인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한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줄 아는가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영게 잠재우고
주님만 내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오직 주님만 따라 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운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아영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해경	

◇ 헌금영수기 ◇

십일조헌금:

김철수 유영남 권미숙 김근종 정옥영 김용진 박효선 김준호 곽혜자
 김혜권 박재임 문복순 최현선 박규석 박경선 박애순 박창운 허정운
 오자영 임승동 백혜숙 전월수 정복순 정완수 김재광 조관행 홍선희
 허호범 박성실 원인해 조현권 김윤수 박상호 이성운 김주경 박권동
 허신열 황지현 전해민 장원호 박성희 이건식 신영신 양준하 양인하
 양재성 임미심 이영우 김혜영 정한구 왕영순

월정헌금:

권미정 김남종 오복순 김순자 김현영 정원석 박준희 이기분 배부례
 이봉배 이유선 방극숙 하현철 최성애 황의일 이현숙 김문주 정현숙
 노우중 이은중 김기성 구명자 김수진 김승현 이경남 강미라 이영우
 무명

감사헌금:

오복순 김종락 박영신 정완수 김재광 광상훈 류혜순 박창운 허정운
 김도훈 하은주 한상익 정영선 장재영 김재영 김현영 곽권희 김용진
 권미정 김주경 김윤수 이우원 옥귀희 김효정 백혜숙 김순복 김종철
 고영애 문금석 김준호 곽혜자 곽새롬 무명

녹색공헌금: 오현정 정두리 윤석철 장혜숙 양준하 무명

생일헌금: 정두리 이건식

숙명	인도자	숙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박영희	장혜숙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배부례	노순옥
안디옥	임정자	최경미	서원금	이소순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이명희	신영신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안정숙	최희영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박홍재	곽권희
시온	박효선	허정운	허정운	임미심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최숙화	김재광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이순정	이봉옥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구성실	이형숙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오현정	정현주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백혜숙	정영선
갈라디아	유경순	김수진	김수진	유경순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이영란	방극숙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박혜경	조항미

■ 교/회/소/식 /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사순절** :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실하게 절기순례에 임하십시오.
2. **찬양대 임명** : 오늘 예배 중에 2010년 찬양대원을 임명합니다.
3. **졸업예배** : 2009학년도 교회학교 졸업예배가 오늘 오전 11시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4. **임원회** : 예배 후에 2월 임원회가 있습니다.
5. **오후집회** : 오늘 오후 집회는 사순절에 대하여 손성현 전도사님이 강의를 하십니다. 제목은 '고난의 멜로디에 조율하다' 입니다.
6. **바자회** : 청년부가 주관하는 아이티 돕기를 위한 바자회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예배 후 로비에서 물품을 판매합니다.
7. **지방회** : 중구용산지방 지방회가 3월 2일(화) 오후 2시부터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8. **기도의 밤** : 이번 주 수요집회는 3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기도회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9. **신앙실천** : 옷장을 정리할 때가 왔습니다. 겨울철에 한 번도 안 입었던 옷들을 다시 장 속에 넣지 마시고 기증하십시오.

* 식당 봉사 : 예루살렘 속 (다음 주 : 베들레헴 속)

* 설거지 봉사 : 장재영 김재영 이준하 (다음 주 : 이국노 김민화 이건식)

* 새교우 : 전 용 (청년부)

2010년 찬양대 명단

찬 양 대 장 : 김근종 / 지 휘 : 윤주원 / 반 주 : 최윤선 김아영
 소 프 라 노 : 이은자 황선희 윤성희 정현주 오현정
 메조소프라노 : 구명자 송양진 박성희 정영선 정미경 이현숙
 엘 토 : 최윤희 정옥영 홍선희 윤수진 유지은
 테 너 : 한상익 안길상 이종현 김근종 이광섭
 베 이 스 : 최영돈 장원호 조항범 이한림 안종일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